

교회 교육공간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환경구성

우지연(나무교회/전도사)

pleasure-20@hanmail.net

한글 초록

교육의 한 요소로써 교육공간은 교육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 교육공간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교육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교육내용, 방법만 가지고는 충실하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를 수행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교육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기 쉬운 주제이고 이를 재정이나 교회 규모에 관한 쟁점으로 미뤄두고 있다.

교회 교육공간은 신앙이 잉태되고 자라는 영적 발달과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 교실 공간의 배열과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교회 교육공간을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실과 비슷한 교회 교육공간은 의자, 책상 등의 가구 배열이나 물리적 형태의 기본환경이 유사하다. 이는 지식전수, 획일주의 등의 목적에 적합하게 기획된 것이므로 교회 교육공간은 이를 지양해야 한다.

인간은 공간에서 태어나고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공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인간에게 공간적 회심을 일으켜 방문하는 곳이 달라지게 한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공간이 학교 교실보다 더 세심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는 것은 교회 공간이 물리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 예술적 목적을 추구하는 학교와 달리 이 모든 것에 예전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환경구성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공간적 배려, 기독교 예술작품이나 상징물 등을 배치함으로써 신앙교육의 환경 조성, 공간이 지닌 기독교적 정체성인 예전성을 통해 기독교적 공간의 특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 발달을 위한 공간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고 내·외재적 교육환경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공간 문제에 교육적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제어〉

교회공간, 기독교환경, 교회교육공간, 공간적 회심, 영적 공간, 교회교육환경

I. 들어가는 말

한국 선교 초기에 예배 공간은 어른들과 같이 사용했고, 교인이 늘어난 1980년부터는 교육부서실이 따로 생겼다. 그러나 교회 교육공간은 교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많은 교회가 지하실, 또는 불편한 위치에 교육부서가 있었고 때때로 오래된 가구나 기자재를 두는 재활용을 같이 두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새로 건축된 교회 교육공간은 유치원이나 키즈 카페(kids cafe), 또는 어린이 도서관 등에서 봤던 색상, 가구, 재질, 크기, 형태 등을 옮겨놓은 것과 같다. 교회 교육공간이 학교 교실과 마찬가지로 의자나 즐비한 풍경을 닮는 꼴도 문제이지만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교회 교육공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의 교육개혁이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었다고 한다면 공간에 대한 연구는 교육내용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간은 지금의 교회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신앙공동체가 가진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으며, 곳곳에 비어있는 자리는 다음세대의 신앙전수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한다.

교회 교육공간은 신앙이 자라고 양육되는 곳이므로 학교 교실과 달라야 하고 아이들의 흥미나 재미만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나 성인의 기대나 편리만 고려해 연출해도 안 된다. 교회 교육공간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고 쾌적한 교회 교육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논의해야 할 주제이다. 본 논문은 교회 공간을 기독교교육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면서 예배와 교육이 같이 일어나는 교회 교육공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II. 교회 교육공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교육공간인가, 교육환경인가

오늘날 교회 장소에 사용된 말의 어미(語尾)에는 예배실이나 부서실,

성가대실, 새가족부실, 대예배실 등과 같이 방(房)이나 실(室)이 어간에 붙는다. 어미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실의 구분은 일정한 성격이나 특성을 구획할 때 사용한다. 교회에서 교육부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부실, 유년부실 등과 같은 이름으로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서명과 상관없이 이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실이라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교회 공간은 일반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특수한 영역으로 예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공간은 교육실과 예배실의 목적 외에도 동일한 공간에 식당과 다용도실로 혼재(混在)되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한 공간에 대한 다양함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간의 유연성은 규모와 목적에 따라 융합되거나 변화된다.

그러나 공간의 한계는 부서실의 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육부서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마치자마자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교육의 단절을 초래한다. 공간은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공연장이 아니고,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비와 경탄,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와의 사귀이 공유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공간 자체에 머무름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공간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공간의 역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실이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 공간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이것은 영혼이 잉태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공간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회가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배려 받아야 하는 학습자나 교사에게 양해를 구한다. 그래서 교회 공간이 협소할수록 기독교적 가치와 목적에 따라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유용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가 허다하다. 공간의 유용성은 현재 어떤 그룹에서 이 공간을 이용해야 하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공간을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에 대한 주체자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할 때, 공간과 함께 혼재되어 사

용하는 장소, 환경의 개념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 비롯된 특성과 차이를 발견하면서 교회의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실행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공간의 교육적 효과와 교회 교육공간에 주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공간과 장소의 개념에 대한 재고

공간(空間)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거나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에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영역이나 세계를 말한다. 그리고 장소(場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19).

장소는 공간에 비해 협소한 개념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간은 비어있는 상황을 채울 일련의 목적이나 가치가 공간에 덧붙일 때 공간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낸다. 가령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어느 장소로 오라고 한다. 이것이 장소가 가진 특성이다.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 부동(不動)의 속성이 있다. 그런데 공간은 학교 공간, 교회 공간, 교육 공간, 성가대, 예배실, 사무실 등과 같이 공간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곳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공간은 특정한 목적이나 그곳을 사용할 사람들이 이미 그 공간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기에, 공간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공간에 붙인 명칭만으로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교회는 병원, 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의 성격은 “-을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목적이 지닌 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령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이고 은행은 현금의 예금 및 인출을 위한 곳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공간의 본연의 특성을 병원을 쉼터나 카페로, 은행을 도서관이라는 전혀 다르게 연출해도 본래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기대에서 빗나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간으로의 초대가 비신자에게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교회가 비신자에게 방문하기 좋은 공간, 친밀한 장소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목적이 신자나 비신자 모두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공간에 대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이 인간의 두려움과 증폭되어 공간을 장소 되게 한다. 이-푸 투안(1995, 20-21)은 인간이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시작해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장소는 안전(security)과 안정(stability)을 추구하고 움직임 속에서 정지한다. 비어있는 자유로운 공간, 어떤 모양이든 담을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 공간이 장소로 고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공간의 개방성, 움직임을 잃어버리고, 장소가 예배하는 공간으로의 강령(綱領)만 살아있게 되면 그곳은 성지화(聖地化)된다. 장소는 보장과 편안함, 안정성을 주지만 그것이 고정되면 사유화, 세속화, 세습화 등의 연이은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공간과 장소의 차이는 인간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하는 경험에 따라 장소가 된다. 오늘날 곳곳에 교회가 장소로 고정되어 있지만, 그 장소도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든 취할 가능성이 있는 빈 곳이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보호를 위해 장소로 고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공간이 가진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차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간이 장소로써 고정되지만 획일화되지 않고 자유를 유지하면서 기독교다움을 구현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2) 공간과 환경의 개념에 대한 재고

공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단어는 환경(環境)이다. 환경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9).

환경의 범위는 상당히 광의적이어서 자연적 환경, 구축 환경, 사회적 환경 등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연적 환경은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는 본래 주어진 생득적인 특성을 보이고, 인위적

환경(built environment)은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조성을 가해 만든 것이다(토목용어사전, 1997). 크게는 도로, 건축물, 공원, 놀이터 등이라 할 수 있고 작게는 가정이나 학교 안의 시설, 방안의 조명, 색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경학교나 수련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일부 사람을 위한 주변 환경정리와 같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된다. 또는 환경미화, 환경정리, 환경 꾸미기 등으로 교회 공간에 대한 부분적 변화를 위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교회 환경은 인위적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 환경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못한 이유도 임의적이고 일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바꾸는 것으로 생각할 뿐 교회의 가치나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없어서이다.

인위적 환경은 공간과 장소와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주체가 있다. 주체는 환경의 존재자 혹은 사용자,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인간이고, 자연을 활용하거나 구축한 인위적 환경이 또 다른 주체이다. 이 주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역학(dynamic)이 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할 때 핵심이 되는 주체와 요인 간의 작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간과 장소가 인간의 개별적 지시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환경은 인간이 비록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재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떤 색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색이 다시 인간에게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

최근 이러한 논의는 광고심리학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관한 연구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라비언(Mehrabian)과 러셀(Russell)의 S(자극, stimulus)-O(유기체, organism)-R(반응, response) 모형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김춘중·박상수·황종문, 2012, 773).

또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제를 언급한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저서 『인간발달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학적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환경 외에도 크게 다섯 가지 체제(system)에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다. 인간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통찰을 주었다(Bronfenbrenner, 1992, 7). 그리고 이 이론은 한 사람의 발달에 미치는 거시적인 차원으로 환경을 확장하고, 인간에게 미치는 각 체계의 영향에 주목하게 하는 공헌을 했다.

하지만 각 체계는 각각 하나씩 따로 나뉘어있는 개별적이고 단선적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의 환경에는 각 체계가 서로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왈(Wahl), 이왈손(Iwarsson), 오스월드(Oswald)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은 브론펜브로너의 한계를 보완한다. 그들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person-environment resources) 이론을 통해 개인이 처한 각기 다른 독특한 상황과 특별한 입장에 따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했다. 즉, 인간은 환경을 자신의 편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용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예컨대 책상, 의자, 벽, 조명 등과 같은 가구나 악기 등의 배치, 조명, 재질, 색 등을 바꾸기만 해도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상황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학습자를 둘러싼 거시적인 가정, 학교, 교회가 아니라 미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물리적 조건만 달라져도 학습자가 받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간이 학교폭력과 상관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이어졌다. 독일은 학교폭력을 개인의 인성 문제나 결함으로 진단하거나 심리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공간과 관련해 학교 공간의 분배 및 활용의 문제가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Fuchs, 2008). 그리고 저밀도 교실에서 학업 성취가 더 높고 교실 내 영토권(territoriality)이 보장될 때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해외의 연구들과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학교와 교실이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교실 모델은 정확성, 반복성, 그리고 지시를 따라야 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할 뿐임을 학자들은 비판하고 있다(신나민, 2012, 20-21, 23-24).

임정훈(2018, 19-20, 202)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다. 그는 학교를 가장 권위적인 공간으로 보는 근거로 우리나라 대부분 학교가 취하는 모양에서 발견했다. 1962년 학교 시설 표준 설계도가 제정된 후 남쪽에 운동장, 북쪽에 복도를 두고, 그 사이에 교실을 일자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학교 건축으로 오랫동안 굳어졌다. 약 30년 동안 비슷한 형태의 학교 건물이 지어졌고 교실의 모습도 동일했다. 그사이 교실은 교수사역을 위한 절대공간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혔다. 그리고 1990년 이후 학교 시설 표준 설계도에 따라 학교를 건축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교실의 크기나 건축 형태는 유지되고 있다.

똑같은 학년, 똑같은 구조, 똑같은 색깔과 조명, 똑같은 방향, 똑같은 창문, 그리고 똑같은 책상과 의자, 바탕색으로 사용되고 있는 흰색과 회색 등으로는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다변화된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환경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활동 범위에 미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교육환경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3요소인 교재, 교사, 학생이라는 요소와 함께 교육의 목표에 가깝도록 유도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김선영(2016, 57)은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부터 학습 목적과 개념 및 실행공간의 조화를 위한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학습 환경의 구성을 위한 물리적 조건은 공간(space)과 기술(technology)을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은 교육공간이 교육의 목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공간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교육학자가 아닌 건축학자라고 할지라도 이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차원에서 공간, 장소, 교육환경을 연출하는데 내포된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말씀 중

심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음향이나 책상과 의자 등과 같은 환경을 중시하고, 문화를 강조하는 교회는 악기, 음향, 조명, 무대, 영상 등을 필요로 한다.

윌리엄 에어스(2012, 109)는 “모든 인간 환경에는 그 안에 어떤 생각, 믿음이 깃들여 있다. 일부러 그렇게 했든 아니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환경을 만든다. 그렇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공간을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은 인간 행동을 담는 그릇이다. 때로는 억압적이고 때로는 해방적이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교육공간은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공간에서 표현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교육공간에 덧입혀질 때, 그 공간을 사용하는 학습자나 관찰자들은 공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배우게 된다. 이때 교육이 발생한다. 그래서 교육환경의 설계와 같은 보이는 디자인이나 가치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목적은 공간과 분리가 아니라 동일한 연속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표 1〉 공간, 장소, 환경의 특성

구분	공간(空間)	장소(場所)	환경(環境)
목적	목적지향적인 방향성	고정적, 현실적, 구체적인 상태를 지향함으로써 보호받고자 함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범위로 활동, 직접적이고 개별적 관계를 통한 변화 추구
성격	부동	부동	상호작용
특성	-을 위한	-의	-과 함께하는
예시	유년부를 위한 유년부실, 성가대를 위한 성가대실 등	환자의 병원, 신자의 교회 등	유치원/부모/마을과 함께하는 유치원환경 등

2. 교육의 요소로서 공간의 역할

교육적 맥락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공간이 교육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이다. 공간은 이미 제도화된 학교의 모습 속에서 같은 관점을 유지한 채 발전되어 왔다.

근대적 교육기관이 처음 설립된 1880년대부터 1997년 이전까지 교육 공간은 교육내용을 위한 심부름꾼 역할에 불과했다. 이때까지의 교육공간은 교과중심, 학문중심교육으로 지식과 학문을 전달하고 주입하는데 적합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획일주의와 암기 위주의 전수방식에서 벗어나고자 교육과정의 일곱 차례 개정과 1997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안」이 실시되었고 학교시설, 설비에 대한 요구와 법령, 규정 등의 기준들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공간의 변화가 교육체제와 맞물려 간과되고 있어 온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현대 교육공간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교육공간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하나의 교육의 요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은 교육과정을 세우는 일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의 교육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교육공간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것, 바로 그 자체를 지칭하는 직·간접적인 표현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내 연구가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박선형·김수만(2012, 33-57)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는 교육환경이며 그중에서도 학교시설의 환경을 꼽았다. 학교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이지만,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장이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정서적 발달에 교육환경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학교환경이고 그래서 학교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연숙·안경인·윤혜경(2001, 130)은 초등학교 환경의 변화가 아동의 태도와 정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건물색채, 공간형태를 수정한 후에 아동들이 더욱 행복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며,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커졌고, 친구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지윤·이경선(2018, 152)은 학교가 더 이상 지식의 학습공간이 아닌 아동의 사회적 인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써 가치관과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의 공간적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학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이지만 학교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교회 공간에 주는 의의가 크다.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써 교육공간은 교육을 배우는 학습공간의 장이며,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심리적 공간이고, 신앙공동체의 규범과 가치관을 학습하는 사회적 장이며, 한 공간에서 학습과 식사나 간식, 놀이 등이 일어나는 생활의 장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영적 만남의 장이다. 교회의 교육공간은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과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곳이다.

III. 교회 교육공간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환경구성

1. 교회 교육공간의 기독교교육적 의의

기독교적 교육환경은 기독교의 색채가 들어있는 특이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표현상 십자가나 음악, 예술품 등의 장식을 연출하는 형태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은 채 교회 공간을 공유하는 실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교회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과 일반적 공간에서 다루고 있는 발달 심리적, 교육적 특성이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회 공간은 교회라는 당위성에 따라 기독교성(Christianity)을 드러내고, 한편 공간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환대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교회 공간에 대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정체성의 애매함과 명확성의 균형을 이루며 정체성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

공간에 대한 기독교적 정체성은 공간이 가진 기독교교육적 역할을 소

명(疏明)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간은 공간과 함께 자라고 공간을 통해 자기를 배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문화나 사고, 식습관, 말투, 행동 등이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미소, 말투 등은 자기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은 가정에서 학교로,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공간을 넓히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이해한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본성이지만, 이 말은 결국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거나 자신이 다닌 학교나 태어난 지역, 일했던 근무지를 알려주는 것은 공간을 통해, 그리고 공간과 함께 성장한 자기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교회 공간도 신앙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는 순환을 하고 있다. 교회 공간은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사고와 행동 등의 인간 전 존재의 양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지 않고, 공동의 장소에서 공동의 시간에 신앙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공간은 공간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역할이 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경험하고 보게 되는 물리적 조성물을 통해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한다. 예컨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에 카페, 놀이터,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조성한 것은 교회가 가진 생각을 나타낸다. 당회실을 불편한 곳에 두고 장애인을 위해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교회가 가진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작은 교회의 경우, 공간부족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 작은 교회 6개가 모여 하나의 예배당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진정한 사명과 연합을 보여준다(국민일보, 2020).

또 교회 공간을 가르침의 도구로 조명하면, 교회 공간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 생긴다. 교회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신앙교육의 환경(ecology for faith education)이다. 심지어 화장실에 붙은 알림판, 교회에서 사용하는 휴지, 쓰레기통, 가방걸이 등의 사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된다. 이것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공간은 의도적인 계획과 형식적 교육보다 비형식적 교육(latent curriculum)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기억되면 잘 잊히지 않고 쉽게 변할 수 없는 고정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 교육공간의 특성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교육공간이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 공간은 교회를 찾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따르며,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반응(response)을 일조하는데 연출되어야 한다.

유스트(2004, 23-24)는 미국의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접하는 미키마우스(Mickey Mouse)나 곰돌이 푸(Pooh)와 같은 캐릭터들(characters)을 어린이가 있는 곳, 보는 곳에 자주 등장시킴으로 어린이들이 캐릭터와 친숙하게 되고, 자주 보면서 그것에 인격을 부여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도 교회의 건물, 예배실, 분위기, 의자의 배열, 식당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기념품 등도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그래서 교육공간은 직접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제공한 사람과 교회를 생각나게 하고 매개물을 자주 보게 됨으로써 기독교적 가르침을 상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도구이다.

또한 교회 공간에 있는 알림판, 현수막, 포스터, 성경책, 헌금함, 주보, 성의, 조명 등이 교육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교회의 교육공간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학습자를 배려하고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계획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간은 영적 공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라는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

2. 기독교적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학교식 교실 모델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간에서 교육부서가 사용하는 부서실은 학교 교실 모양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교실 공

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표 2〉 교육 공간구성 현황

구분		학교 교실의 기본환경	교회 부서실
외재적	전면	교탁 교훈과 답훈 교사용 책상과 의자 피아노 컴퓨터 및 스크린	강대상 표어 피아노 컴퓨터 및 스크린
	중앙	학습공간: 책상과 의자 정면 유도	예배 공간 정면 유도
	옆면 (운동장)	유리창 화분	교회별 상이
	옆면 (복도쪽)	유리창 개인 사물함	부서 사물함
	후면	그림, 만들기 등 작품 게시 거울 쓰레기통	부서 사물함 다목적 책상 쓰레기통
내재적	목적	교육의 목적 실현	교육의 목적 외에 예전성

학교 교실 공간이 갖는 이러한 배열과 문제는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조직적인 감시와 규제, 훈련이 지배하는 규율주의적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칠판을 향하도록 정렬된 책걸상, 흰색과 회색으로 섞인 벽 색, 열을 지어 앉는 방식, 유리창을 통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공간적 단위의 구획 정리 등은 공간을 관리하는 근대식 문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교실 구조는 수업방식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로,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공간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최규진, 2018, 80-81).

그런데 교회 교육공간이 근대식 학교 교실의 모양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재확인되고 학교 교실 모델의 문제들을 교회 교육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어 나타난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은 처음부터 학습자를 제외하고 기

획되거나 예전적 초월성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시설과 비슷하게 건축되거나 유행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간은 교회의 규모나 부서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제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진정한 만남과 사귀이 일어나는 코이노니아(koinonia)가 이루어지는 교육공간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보다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다른 모델 즉, 세속사회에 발맞춰 넓고 좋은 시설이면 된다는 편견에 빠져 있다. 하지만 공간이 갖추어야 하는 물리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 예술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한 환경 조성이다. 예배를 위한 교육환경으로 정돈되지 않으면 그럴듯한 다른 것은 기독교 장식품에 불과하다.

머피(2004, 321-327)는 기독교 신학의 예전적 형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예배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즉, 예배는 통전적인 인식론이며 기존의 지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적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르침과 실천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식 교실 모델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교육공간은 기존의 교실(classroom)이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환경이며, 예배가 교육이 되고 교육이 예배가 되는 전인적인 인간의 영적 발달을 추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이고 필요한 교육환경이다.

1) 신앙발달을 위한 내재적 교육환경

교실은 전통적인 인식론에 근거한 학교식 형태의 교육을 대변하며, 신앙발달을 위해서는 교실 공간이 아닌 관계적, 영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팔머(2006, 223-228)도 하나님과 관계적인 앎을 위해서는 개인이 응답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 영적 형성을 위하여 겸손, 믿음, 사랑, 은혜에 대한 개방성이 일어나도록 훈련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

다. 이때 팔머가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공간을 뜻한다.

신앙발달은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는 사건(event)이다. 신앙발달을 위한 내재적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 마음의 부딪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게 하는 무심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기꺼이 응하는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다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학습자가 하나님과 부딪히는 교통(交通)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자기 것이라 믿고 주장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공간은 다른 환경이나 시설과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신앙의 탐구가 교회로 말미암아 제기되고 지속되고 형성되는데 교회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신앙 발달과 관련하여 교회 공간이 가지고 있는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2) 신앙발달을 위한 외재적 교육환경

교회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림, 가구, 방의 색깔, 예배실의 위치, 악기 등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와 실천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까발레티(sofia Cavalletti), 스투어트(S. Stuwert), 베리만(J. Berryman), 양금희(2014, 208) 등의 학자들은 “준비된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물리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였다. 학자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영적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린이는 다각각적인 감각을 주는 모양을 통해 그것을 만지고 느끼고 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할 때 필요한 교육적 도구가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면 절기나 교회력에 맞게 환경의 구색을 잘 갖

추는 일이다. 절기의 의미를 상징하는 배너(banner)를 걸고, 사순절에 보라색 의상을 입거나 십자가를 만드는 활동을 통한 재현을 하고, 부활 계란을 장식해서 거는 것, 또는 대림절 성탄초를 밝히고,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갖추는 것은 교육의 성과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구성하는 일이다.

또한 신앙발달을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고정된 사고를 버리고 유연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성인보다는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독교 예술작품을 배치함으로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고, 예배 공간으로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크기와 모양의 가구로 배치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학습과 신앙에 적합한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 기독교적 외재적 환경구성

기독교교육적 환경구성 특성	외재적 환경구성	
	명시적 커리큘럼	물리적 차원
학습자 배려	고정적 사각 평면 배제 다양한 형태의 가구 자연 친화적 소재 온도, 환기, 통풍 등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살아있는 동식물 편안한 의자 다양한 책상 공기청정기 냉온풍기 낙서칠판
기독교 예술	성경 기독교 관련 서적 예술품 음향, 조명, 색깔	기독교 서적 성경 이야기책 성경 이야기 교구들 그림책 조명 악기 조형물
예전적 자리	개인적 성찰 공동체의 참여가 쉬운 공간적 변화 고려	낮은 강대상 성경책 십자가 조용한 음악 개인 기도석

공간은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교회 공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위한 환경구성임을 기억하고, 외재적 교육환경도 이러한 의도

에서 빛나가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 소품은 장식품이지만 신앙을 촉진하는 전략도 된다. 교회 공간의 모든 것은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고 신앙의 발달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전부라 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교회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뿐 공간을 활용하고 공간을 통해 교육적 역할이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교회 공간을 예전적 성격과 다르게 구성하고, 기독교 예술을 통한 신앙발달의 촉진, 또는 예전적 자리로의 역할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교회 공간이 학습자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적 역할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공간이 가진 힘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교육공간의 중요성도 기독교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공간적 회심이 생겨 자신의 거처를 바꾸고 교회라는 공간을 중요한 근거지로 삼는다.

그래서 교회 공간에 대한 의의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당연히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교제의 공간, 정신적으로 안식처가 되어야겠지만 기독교의 가치를 공간 안에 담아 해석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이 할 일은 학교 교실 모델과 흡사한 교회 교육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공간, 참 쉼이 있는 공간으로 연출되도록 공간문제에 기독교교육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수만·박선형 (2012). 학교시설 환경 진단도구의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33-57.
- 김준중·박상수·황종문 (2012). 통합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감정반응 및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 773-782.
- 국민일보 (2020.). 한 지붕 여섯 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9224&code=23111113&sid1=chr&fbclid=IwAR2x3MeyJ9OXReFnAdg1-pv7cWcWwzZ3WKErGB9NYbG3fgC7p9HrcU-O0Bs> 2020.6.9. 인출
- 박남화 (2000). 교육시설 50년, 어떻게 변모했나.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809> 2020.6.5. 인출
- 배지운·이경선 (2018). 감성발달환경을 위한 교육공간의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7(5), 152.
- 석민철 (2016). 초등학교 학급교실공간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부산.
- 신나민 (2012). 교육학자의 관점에서 본 학교공간 개선. **한국교육시설학회**, 19(5), 20.
- 양금희 (2014). **어린이영성교육**. 서울: 센싱더스토리.
- 이규민 (2016). **포스트모던 시대의 통전적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이연숙·안경인·윤혜경 (2001). 초등학교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단기적 영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8, 124-125.
- 어룡초등학교 교직원 (2017). **왜 학교 공간인가**. 서울: 북트리.
- 임정훈 (2018). **학교의 품격**. 서울: 우리교육.
- 전은호 (2002). **잡자는 교회디자인을 깨우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최규진 (2018). **일제의 식민교육과 학생의 나날들**. 서울: 서해문집.
- 최윤필 (2014). **겹겹의 공간들**. 서울: 을유문화사.
- 토목용어사전 (1998). 인위적 환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13831&cid=50333&categoryId=50333> 2019.7.19. 인출
- 표준국어대사전 (2019). 공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498ea-b0199340e781ca1f12b151323e> 2019.3.20. 인출
- 표준국어대사전 (2019). 장소.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1ec96aa9c214c21b9516a57b1cbea73> 2019.3.20. 인출
- 표준국어대사전 (2019). 환경.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6109233bc594889b5f343eed91adca9> 2019.3.20. 인출
- 한국종교민속연구회 (2007). **종교와 의례공간**. 서울: 민속원.
- 한국교육사학회 (2011). **역사 속의 교육공간, 그 철학적 조망**. 서울: 학지사.
- Bronfenbrenner, U. (1992). **인간발달 생태학**. 이영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1979 출판)

- Heimbrock, H-G. (2015). Sigurd bergmann, religion, space, and the environment, brunswick.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19, 228-231.
- Kim K. (2010). Religion, space, and place. *Religion and Society*, 1, 29-43.
- Murphy, D. D. (2006). Teaching that transforms: Worship as the heart of Christian education. *Teaching Theology & Religion*, 9, 321-327.
- Palmer, P. J. (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원저 1993 출판)
- Tuan, Y-F. (1995).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 서울: 대운. (원저 1977 출판)
- Waltz, M. L. (2007). **감동이 있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 서진희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저 2004 출판)
- William, A. (2012). **가르침다는 것**. 홍한별 역. 서울: 양철북. 원저 2001 출판)
- Yust, K. M. (2004). *Real kids, real faith, practices for nurturing children's spiritual l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Learning Environmental Arrangement in Church Educational Space

Woo, Ji Yeon

Cooperation Paster, Namu Presbyterian Church

As an element of education, the educational space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purpose of education. The place of education is not only the passage to deliver actual curriculum, but also the purpose itself that can be accomplished through educational content. That is because the purpose of education cannot be achieved only with instructors, students, curriculum, and methods, but require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educational space that represents the goal and the place where it all can be implemented. Nevertheless, the problem that lies with educational space is easy to be overlooked and it has been rather considered as an issue related to the finances or scale of the church.

The church educational space gives birth to faith and growth, where spiritual development and experience may occur. However, the reality follows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school classroom arrangements and structures. In addition, even if the church educational space can be arranged according to the needs of its students, it cannot deviate much from the standard uniform format. In particular, the basic environment of church educational space is similar to that of standard school system in terms of arrangement of furniture such as chairs, desks, and its physical structure. As the school system was originally designed and tailored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knowledge and standardization, the space for church education must stay away from it.

Humans are born and die in a space, where encounter with God also happens. Also, communication with God causes spacial conversion to humans, changing the place of their visitation. So the church educational space must

be more meticulously designed and comprehensive than that of school which pursues physical, educational, psychological, social, and artistic purposes because the church educational space pursues the liturgical elements, as well.

Therefore, the Christian learning environmental arrangements must seek liturgical elements, which is the major Christian value, by placing Christian artwork or symbols for church visitors. So in this research, I want to stress the role of Christian educational space for spiritual growth and pursue intrinsic and extrinsic changes in learning environment, leading to a greater awareness of the Christian educational space.

〈 **Keywords** 〉

Church space, Christian environment, Church educational space,
Spatial conversion, Spiritual space, Church learning environment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